



꽃보다 화려한 산 열매 주렁주렁



제주 핫플레이스 (30) 가을 한라생태숲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한라생태숲은 제주의 숲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명품 숲이다. 천연에 인공을 가미해 다양한 수종을 조립한 덕에 이 즈음이면 나무들이 앞다뿔 주렁주렁 매단 열매를 감상할 수 있어서 더욱 그렇다.

▶명품 숲으로 성장-한라생태숲은 한 공간에 제주 모든 숲의 모습을 갖추고, 계곡과 습지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이곳은 숲이 훼손돼 방치된 야초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겨울 첫 삽을 뜬 지 9년 만인 2009년 9월 개원했다. 이후 또 9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제주에 사는 난대성 식물에서부터 한라산 고산식물을 총 망라해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제주만의 생

꾸지뽕·쪽동백 등 풍요로움 선사 동·식물과 사람 공존하는 숲 모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완충 역할도

태숲으로 성장했다. 불모지에서 다양한 동·식물의 삶의 터전으로, 산림생태계 연구와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곳으로 조성해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니기에도 편하다. 지난해 보행약자를 위해 무장애탐방 시설 2.8km 전구간의 노후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덕분에 비교적 완만한 탐방로는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돼 있으며, 간이 화장실과 지하수를 활용한 음수대까지 갖춰놓고 있다. 탐방로 곳곳에 전망대와 쉼터도 마련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숲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이다.

▶열매 가득 탐방로-한라생태숲에서는 숲 속 깊숙이 들어가도 탐방로에서 온갖 산열매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막 땀한 노란열매 무더기를 매단 마가목, 손으로 빚은 듯 기기묘묘하고 울퉁불퉁한 형상의 열매를 맺은 뽕나무와 꾸지뽕, 작은 포도송이 같은 열매를 가지 아래로 늘어뜨린 쪽동백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태풍 '솔릭'을 견디지 못했는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져버린 밤송이들도 있다. 13개 테마숲길 어디를 가도 좋지만 특히 산열매나무숲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계절에 따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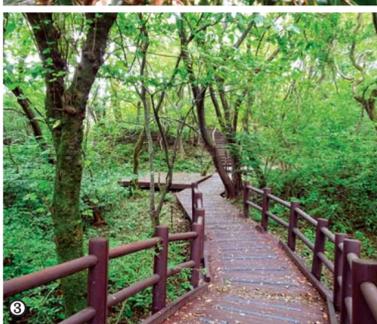
사람이 오가기 편한 길이 동물에겐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한라생태숲은 노루의 삶터이기도 하다. 아직 낮에는 땀별이 내리쬐 여름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9월 초의 한라생태숲에서는 사람으로 치면 10대쯤 되어 보이는 노루들과의 만남도 예상일이다. 산림욕장 입구 졸참나무 뒤에서 만난 노루끼들은 한창 숲 속을 내달리다 인기척에 놀랐는지 급히 방향을 틀어 사라졌다. 반면 산열매나무숲 삼거리에서 만난 노루는 바닥에 떨어진 마가목 열매를 먹느라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동·식물 살터-196ha의 부지에 13개 테마숲길이 조성된 한라생태숲에는 동물 510여종과 식물 760여종이 살고 있다. 해발 600-900m에 걸쳐서 자리 잡아 생물권보전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숲이기도 하다.

한라생태숲 탐방객센터에서는 한라생태숲의 생태를 주제로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한라생태숲 홈페이지의 '오늘 생태숲에는' 코너를 통해 지난 2010년 6월 21일부터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소개하는 생태숲의 모습을 모아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다.

찾아오는 사람을 반기기라도 하듯 숲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다. 봄이 화려한 꽃을 피워낸 나무들로 시각과 후각을 자극한다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품은 나무들로 미각과 촉각을 만족시키고 풍요로움까지 안겨준다. 가을 한라생태숲은 들녘만큼이나 풍요롭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1 꾸지뽕 2 쪽동백 3 한라생태숲 탐방로



한라일보 30년 제주 30년 (21) 미리내 체육공원

12년 쌓은 쓰레기산, 제주시민의 품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체육공원으로 재탄생

한때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체육시설로 탈바꿈한 제주시 미리내 체육공원.

미리내 체육공원은 1979년 11월 쓰레기 매립지로 선정된 후 1980년부터 1992년 7월까지 약 12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됐다.

과거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랬듯 노형 매립지도 차수시설 없이 비위생 단순 매립방식으로 면적 7만5452㎡에 1494㎡의 쓰레기가 매립됐다. 매립 종료 이후 묻힌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매립가스 등으로 오염된 땅을 살리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비 총 66억원을 투입해 노형동 비위생지 매립지 정비사업이 진행됐다. 기반 시설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제주환경시설효과연구소에서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복도를 이용해 인조 잔디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어린이 놀이 시설, 야외 공연장 등 체육 시설이 갖춰졌다. 2007년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도 조성됐다. 행정구역상으론 제주도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는 노형동이지만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특성 상 애초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해 있어 거주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강희만·홍희선 기자



미리내 체육공원의 1989년도 모습. 주로 생활쓰레기가 매립됐다(위). 미리내 체육공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2001년 비위생지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탈바꿈됐다(아래).

합 격
제53회 공인회계사



김중효
(서귀고 38회 졸업, 인하대학교)
부: 김용진(前 서귀포수협 상무) · 모: 양영숙의 차남

제53회 공인회계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산읍 신양리 부모형제일동

합 격
제53회 공인회계사



오재욱
(제주사대부고 22회 졸업,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부: 오영준 · 모: 양순옥)

공인회계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엄마 친구들 일동

취 임



양윤경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 4·3 희생자유족회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4·3 victims